

“철저한 진상규명”…오월 광주에 보내는 文대통령의 전상서



18일 오전 광주 북구 오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 국회의원, 5·18 유가족, 5월 단체 관계자 등 1만여명의 주요객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文대통령 기념사에 담긴 의미

“5·18은 한국 민주주의의 버팀목”
평화·외국 차단 등 6가지 약속
진정성·절절함…20여차례 박수

문재인 대통령의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는 지난 9년 동안 축소되고 폄하됐던 5·18과 광주정신을 바로 세우고, 국민 우선과 민주주의 복원,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짧고 형식에 그쳤던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에서의 기념사와는 격조 의미도 달랐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기념사도 아닌 총리 기념사로 대부분 대체되는 ‘수모’도 겪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과 광주정신이 지닌 6가지 의미와 대한민국 행정수반으로서의 6가지 약속을 담아냈다. 절제된 단어였지만, 진정성과 절절함·단호함이 묻어났고, 이 때문에 기념식 참석자들로부터 23차례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5·18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준 힘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버팀목 ▲민주주의의 이정표 ▲민주정부의 적통 ▲고통과 치유 ▲통합으로의 승화 ▲촛불로의 부활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다”면서 “‘주먹밥과 한철’은 민주주의의 참모습이었고, 목숨이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 그대로 촛불 광장에서 부활해 국민 주권시대를 열었다”면서 광주정신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유가족 등에 대한 깊은 위로와 지역민에 대한 각별한 존경을 표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아들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이며,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이라면서 크게 6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그는 우선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5·18 역사왜곡과 폄훼 시도가 있고,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5·18 역사왜곡과 민주주의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권 9년 동안 ‘폭동’, ‘북한군 개입’ 등 5·18 역사가 송두리째 왜곡되고 폄훼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진상 규명의 참된 의미도 피력했다. 그는 “헬기 사격까지 포함한 발표의 진상과 책임을 밝혀내고, 관련 자료의 폐기를 막는 등 5·18 진상규명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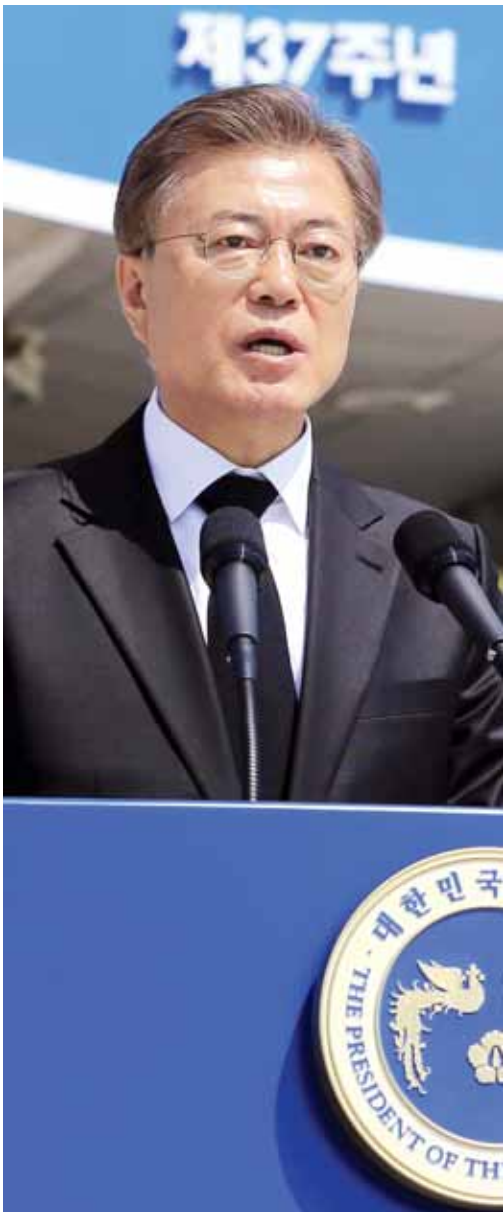
그러면서 “완전한 진상 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꿔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헌법 전문 수목의 약속 이행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보수정권 9년 동안 추모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기념식이 국립 5·18 묘지와 구 묘역 등에서 따로 열리기는 등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단호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10여분 남짓 읽어 내려가는 동안 5월 어머니회 회원과 일부 시민들은 37년 미완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눈물을 흘렸다.

5월 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의 진정 어린 기념사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며 “30년 넘도록 미궁에 빠진 핵심 쟁점들이 해결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恨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상식의 부활, 이게 나라다”

윤장현 시장 5·18기념식 소회

윤장현 광주시장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은 감동 그 자체였다”며 “눈물로 뒤범벅이 된 광주시민들이 ‘이게 나라다’라고 연신 되뇌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자신의 소회를 담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분하고 원통해서 흘렸던 한(恨)의 눈물이 오늘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됐다. 우리는 오늘 보수도, 진보도 아닌 상식이 회복되는 역사를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오월의 승리, 촛불의 승리, 광주정신은 광장에서 촛불로 부활했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다”며 “그 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문 대통령이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며 헬기 사격 발표명령자를 비롯한 진실규명, 역사 왜곡·폄훼에 대한 특별법 개정, 구 도청 복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바람을 약속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2일 광주시민들의 간절한 뜻을 담은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위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광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통합의 집을 기꺼이 지겠다”며 “좌절과 패배의 외롭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승리와 전진,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집을 지고 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5·18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있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 받았습니 다. 그러나 서슬 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5·18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준 힘이 됐습니다. 마침내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 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서 있습니다.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아들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표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켜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

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님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년 전, 진도 팽목항에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낸 편지마치 있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요.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느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려줬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진상규명을 위해 40일 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장 옥상에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저는 오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았던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시십시오.

이제 처벌과 배제, 총각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풀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월 광주의 시민들이 나눈 ‘주먹밥과 한철’이야말로 우리의 자존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의 참 모습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촛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만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 천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숭고한 5·18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 5·18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환호와 눈물로 제창한 ‘임 행진곡’ “9년 쌓인 서러움 말끔히 씻어냈다”

‘임 행진곡’ 1만명 제창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1만여명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기념식장을 가득 메웠다. 9년 만의 일이다.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5·18을 추모하기 위해 민주묘지를 찾은 수많은 추모객들은 뜨거운 햇살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난 채 눈시울을 붉히며 노래를 제창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감동한 참석자들은 이날 기념식의 대미를 장식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에서 그동안의 한(恨)을 풀 듯이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불렀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세 정부 제2호 업무 지시로 내린 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앞줄에서 작곡자인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과 정세균 국회의장과 손을 맞잡고 노래를 함께 불렀다.

가수 전인권씨와 기념식에 참여한 1만여명의 참석자가 모두 다함께 한목소리로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은 힘차게 울려 퍼졌다.

3분 가량 이어진 짧은 시간이었지만, 5·18 유가족과 광주시민들은 지난 9년간 이 노래를 제창하지 못해 쌓인 한(恨)과 서러움을 이날의 제창으로 모두 씻어냈다.

대전에서 온 허종식(32)씨는 “대통령을 잘 뵈아

5·18 기념식을 정말 감동적으로 치렀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첫 부분에선 가슴이 울컥해 노래를 따라 부르기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모든 국민이 원하는데, 왜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제창을 반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9년만에 제창한 데 대해 여권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감격’을 표했다.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 어떤 때보다 마음 속에서 목소리가 목까지 올라가면서 토해내듯이 힘차게, 시원하게 불렀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주의의 분명한 토대를 갖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5·18 기념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서 감동적”이라고 언급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감격스러웠다. 정치인이 돼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행사가 온 게 처음이다”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쌓였던 게 하늘로 승화되는 느낌이었다. 눈물도 많이 났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눈물이 났다. 광장히, 너무 감격적이었다”라며 “진보·보수를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년의 어둠과 분노, 슬픔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희망의 세상이 왔다고 본다”며 “5·18 광주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